

강해진 野大…정국 ‘칩칩산중’

野, 대여전제 본격화 전망
김명수·개혁입법 등 ‘힘로’
국민의당, 선명야당 기조
‘무조건 반대’ 역풍기류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 안 부결로 정국이 경색된 가운데 향후 정국 추이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후보자 인준안 부결로 여소야대(與小野大) 의석 분포라는 현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가운데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책임론’을 통해 충격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하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이번 인준안 부결을 기점으로 삼아 견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서 당분간 여야 관계는 칩칩산중의 형로가 될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12일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은 자신의 힘을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는 더 강도가 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장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전전제가 되고 있다. 국회의 임명동의 표결 대상인 김명수 후보자를 놓고 여야는 개혁 인사나 코드 인사냐를 놓고 국경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권은 사법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김명수 후보자의 임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김명수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120명)과 보수야당(127명)간 이런 대립 구도 때문에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 표결도 결국 국민의당(40명)이 캐스팅보트를 쥐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당은 일단 청문회를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김명수 후보자가 김이수 후보자보다 찬성표가 더 적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저렇게 발끈하고 야당에 책



추미애 야당 패싱?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사)백봉정치문화교육연구원 개소식 및 학술토론회에서 라종일 이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날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 등 야당과는 인사없이 축사를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섰다. /연합뉴스

임을 전가하면 앞으로 국정과제를 위한 법안이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오는 15일부터 본격화되는 국회 입법심사도 여야 대립 속에 여권이 성과를 내는 것은 더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법안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은 정기국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아동수당 문제, 검찰과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비롯한 개혁 입법을 추진한다는 목표지만 야당의 적극적 협조가 없으면 통과

가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예산안도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통과가 쉽지 않다.

이처럼 얼어붙은 정국에서 여권의 대응 전략이 주목된다. 여당은 일단 국민의당 책임론 등을 통해 야권을 공격하며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대표 청와대 초청 회동이 당장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정국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물론 국민의당까지 쉽사리 협조적 자세를 보이지 않을 상황에서 여권이 강공일변도의 선택만 할 수는 없다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야당에서 최소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나아가 협치를 위한 적극적 행보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선은 야당이 거부하고 있는 박성진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탁원민 청와대 행정관 등의 거취 문제를 여권이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야당 역시 정부·여당에 반대할 한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5·18 진상조사 특별법’ 발의

조사원에 사법경찰관 부여

더불어민주당이 12일 5·18관련 의혹 규명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5·18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 국회에 제출했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특별법이 진상규명에 나선 조사관에게 사법경찰관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주당이 당론법안으로 제출한 5·18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1980년 5월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진상과 각종 의혹사건, 진상을 왜곡하기 위한 행위 등을 조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진상조사의 범위는 ▲헬기 기총소사 의혹 ▲전투기 광주 출격 대기명령 여부

▲도청 앞 집단발포 경위 및 발포 명령 체계 등이다. 5·18 당시와 직후 신군부가 5·18 진상을 왜곡하기 위해 조직적인 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진상조사위의 활동기한은 2년이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20인으로 구성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회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경력 부족·정치 편향성 맹공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첫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경력 부족과 ‘정치적 편향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판결을 보면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진보적인 판결을 여러 번 했다”며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의 독립을 절대로 유지하지 못할 것이며 법원의 새로운 사법 숙청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곡상도 의원은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바로 들어가면 초보운전자가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의 ‘정치적

편향성’ 지적에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방어막을 쳤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김 후보자가 특정 연구회 활동을 했고, 몇 가지 사안에 진보적인 답변을 했다고 코드 인사라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경륜 부족’ 지적에 대해 “우려하시는 바는 알겠지만 지금 시대에서 요구하는 대법원장 상은 그와 같은 권위와 경력을 가져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서는 “두 단체에 몸을 담갔던 것 맞지만 정치적 편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두 모인 모두 학술 단체이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단체가 아니다”고 답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박성진 청문보고서 채택 연기 요청

野 3당 “매우 부적합” 표명…자진사퇴 거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박성진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깊은 고민에 들어갔다.

전날 청문회를 한 박 후보자에 대한 당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당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연기를 요청했고 장병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 끝에 일정을 연기했다.

장 위원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야 3당은 박 후보자가 정책적 역량이 매우 부족하다는 데 공감하고, 역사관이나 창조과학회 활동 등이 국무위원으

로서 역할을 수행하기에 매우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민주당은 아직 당내의 입장을 밝히기 곤란한 실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산업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에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적격’으로 채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 이 문제를 간사인 홍 의원에게 일임키로 했으며, 이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국민의당 ‘김이수 부결’ 네 탓 공방

민주 “보수와 결탁”…국민의당 “표단속 실패”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3당은 12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와 관련한 여권의 책임론 제기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당이 지난 11일 김 후보자 인준안 부결 직후 국민의당을 가리켜 “보수야당과 손잡았다”고 비난한데 대해, 국민의당은 “표단속에 실패한 민주당이 남 탓을 한다”, “(후보자 지명이후)115일간 여당이 한 게 뭐냐”고 반박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실패’ 비판으로 전선을 확대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정책회의에서 “김 후보자 부결에 대한 책임론 분석이 어저구니없다”며 “(여권이)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일방적인 비난을 할 때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이번 투표 결과는 인사 난맥과 독선에 대한 경고”라고 규정하고 “국민의당 의원들은 존재감이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캐스팅보트를 행사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이번 정

부여당의 반응은 그동안 야당의 반대 의사에도 부적격 인사들의 임명을 차례로 강행해왔던 오만과 독선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태”라고 했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번 부결은 청와대가 소통과 협치에는 노력을 보이지 않은데 대한 국민들의 경고”라고 여권을 비판했다.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 인준 부결 직후 그 책임을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당으로 돌리는 발언이 잇따라 터져나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임명동의안 부결 후) 환호에 함께한 국민의당을 보며 깊은 자괴감을 느끼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말

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 “보수야당과 결탁한 국민의당도 순간의 기쁨을 누릴지언정 역사의 심판대에서 영원한 패배자로 남을 것”이라며 “민심을 이겨서 행복하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11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캐스팅보트가 아합의 다른 이름인가요?”라며 국민의당을 겨냥한 글을 남겼다. 민주당의 이 같은 국민의당 공개 비판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사실상 전 후보자 인준안 부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이 일찌감치 당론 반대 입장을 정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당만 믿고 있다가 허를 찔린 데 대한 ‘배신감’의 표현으로도 읽힌다.

/김형호기자 khh@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수익형 추천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법원 앞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 5억6천500만)

병 원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490㎡ 건물 6,646㎡ 최신시설 매매 75억
- ★ [의료시설] 광주시 서구 농성동 지상5층 토지 2,319㎡ 건물 3,998㎡ 매매 73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신안동 지하1층 지상4층 토지 330㎡ 건물 995㎡ 최신시설 매매 30억 월수익1천5백만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가 (상담요양)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무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73억4천8백만 병원적합, 골프장, 대형식당, 최적합
- ★ [토지] 동구 지산동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카페거리상권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편백나무숲길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광주, 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 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김재훈 062-714-2251